景幾體歌의 性格考察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結辭를 中心하여——

金 基 卓

<目 次>

一. 序 論
二. 名稱에 對한 諸說
三.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性格
1) 形式上의 意味
2) 內容上의 意味
四. 形態的 接脈과 詩情의 脈絡
五. 結 論

一. 序 論

〈景幾體歌〉는 우리 詩歌의 다른 어느 장르보다 일찍부터 先學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現傳하는 26편의 作品을 通해 볼 때 13世紀初부터 16世紀中葉까지 약 4世紀라는 긴 기간 동안 창작되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硏究[1]로는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고려 詩歌文學의 下位 Genre의 호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아직도 〈俗歌와 俗謠〉 〈景幾體歌와 別曲體〉로 크게 나누어져 사용하고 있다. 특히 〈景幾體歌〉에 있어서 장르적 성격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는 것은 장르 이론이 빈약한 데도 있지만[2] 그 보다 그 형식과 내용의 單調함과 漢文語句의 난해성

1) 지금까지 景幾體歌에 관한 論文들은 15편 정도이나, 그 중 중요한 연구 성과는 李明九, 高麗歌謠의 硏究(서울 : 新雅社 1973). 金倉圭, 別曲體·歌硏究(1),(2),(3), 국어교육연구. 3,5,6(대구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71. 73. 74)와 別曲體歌의 普遍的 性格 考察 白江 徐首生博士 還甲紀念論叢(대구. 형설출판사. 1981) 金文基, 景幾體歌의 綜合的 考察(위의책) 趙東一, 景幾體歌의 장르적 性格 學術院論文集 15집(서울 : 학술원 1972) 成昊慶, 景幾體歌의 構造硏究(서울大 碩士論文 1980). 李鍾出, 景幾體歌의 形態的 考究, (한국언어문학 12집(한국언어문학회 1974). 金甲起 高麗歌謠의 系統問題, 韓國文學硏究 3집(서울 :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硏究所 1980) 등이다.

2) 趙東一, 앞의 논문 p. 22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으로 因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高麗歌謠에 대한 명칭, 형성과정, 형식에 의한 定形과 變形을 따지고 있었으며, 노래자체에 對한 生成背景과 深層的 內容의 綜合的인 分析은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景幾體歌〉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異論이 많고, 극단의 경우 그 장르 설정의 타당성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景幾體歌〉는 〈鄕歌〉 〈高麗俗謠〉 〈時調〉등의 음악명칭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이들의 시가가 대체로 작자 자신의 主觀的인 感興을 노래하는 敍情을 나타내는 노래라고 한다면, 〈景幾體歌〉는 客觀的 事物의 景像을 實際로 있는 그대로 列擧하는 敍景詩로 볼 때 시가 내용상은 물론 형식상으로도 그 區別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景幾體歌〉라는 명칭은 그 結辭에서 由來하여, 〈景〉과 〈幾〉가 語句上으로 合해서 명칭을 말해 왔는데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景幾何如〉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문제의 主된 대상으로 삼으면서 景幾의 限界와 대상의 範圍를 尋察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선 명칭에 대한 문제를 재고찰한 後 그 다음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二. 名稱에 對한 諸見解

高麗時代의 詩歌 中에서 靑山別曲類의 詩歌는 俗謠 또는 古俗歌로 翰林別曲類의 兩班들이 지은 漢文系 詩歌는 〈景幾體歌〉 또는 〈別曲體〉라고 부른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俗稱 景幾體歌는 高麗 高宗朝 《翰林別曲》 以來 朝鮮 哲宗 11年(1860)에 나온 〈忠孝歌〉를 포함시켜 26首가 現傳하는 貴族風流文學의 상징이다. 정작 高麗時代에 나타난 作品은 《翰林別曲》 《關東別曲》 《竹溪別曲》의 3편 이지만, 朝鮮朝의 文藝장르에 포함시킬 수 없고, 더우기 麗代에조차 풍부한 자료및 향유의 진폭의 협소는 스스로 硏究 對象으로서의 의혹과 異說을 낳게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선 〈景幾何如體歌〉 〈景幾體歌〉 혹은 〈別曲體歌〉라는 그 장르 명칭에 揷疑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타당한가, 아니한가를 규명하기 爲해서 旣存學者의 著書나 硏究論文에서 사용된 意見을 一瞥하기로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먼저 國文學 學史와 槪說書에서 살펴본다.

『景幾體歌란 것은 이 노래의 末尾에 景幾如何 或은 〈景 긔 엇더하니잇고〉라는 文句를 붙이므로 이름지어 부른 것인데 이 詩歌는 韓國文學史上 一種 畸形的인 形態의 文學이다. 即 韓國의 傳統的인 詩歌는 鄕歌式 表現이 衰退하므로 말미암아 이미 文字을 떠나 流放하였다. 하지마는 詩歌가 文字上에 定着하고자 하는 自然的 要求에는 不得已 그 當時 形便으로 보아서는 漢字에 依據하지 않을 수 없었다.』(趙潤濟「滿韓國文學史」(五) 景幾體歌편, 東國文化社, 1963).

『이런 體의 노래는 麗朝 高宗 때 諺儒의 所作이던 翰林別曲으로 시작하여, 近朝·宣祖때 權好文의 獨樂七曲까지 三百五十餘年을 계승되어 온 것으로, 그 原形이든 다른 別曲과는 相異한 獨特한 體, 즉 翰林別曲體의 體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別曲이란 靑山別曲, 西京別曲과 같은 民謠體였다. 따라서 우리는 靑山別曲 西京別曲과 같은 民謠體로 된 것을 그저 「別曲」이라 부른다면, 이 翰林別曲體는 「別曲體」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李秉岐「國文學全史」(四) 別曲과 別曲體편 新丘文化社, 1906)

『나는 '翰林別曲'이 發生하던 當初의 名稱으로 돌아가서 '別曲體歌'라고 命名해야 하겠다.…… 別曲이란 高麗 中葉부터 대두하여 李朝·中葉까지 유학자들에 의해서만이 불리어진 '翰林別曲'의 형식을 모방한 一定한 形式을 가지고 있는 貴族的인 詩歌를 말한다』(金起東「國文學槪論」(4)別曲편 精硏社 1964)

『이 두 가지의 詩歌群(한림별곡류와 청산별곡류)은 하나의 歷史的 형태로 규정지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명칭도 '별곡'이라는 전래 명칭을 仍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 바이다.』(정병욱「한국고전시가론」(Ⅲ) 별곡론, 신구문화사, 1977)

『고려의 詩歌中 순전히 漢文化 社會의 지식층에서만 발달한 長歌로「景幾體歌」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別曲體」(가람)「景幾何如體歌」(으뜸어문학회), 또는「景幾體歌」(自安山)라고들 부르고 있는데, 여기 명칭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없지 않겠으나, 나는 우선 오래 불리어졌고, 또 널리 보급된「景幾體歌」를 그대로 仍用하려는 것이다. 이 노래들은 그 末句에 거의 규칙적으로「景 긔 엇더하니 잇고」혹은「景幾何如」라는 句節이 붙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張德順「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8)

그 외에도 梁柱東은 〈別曲體〉[3]로 金倉圭는 〈別曲體歌〉[4]로 金思燁은 〈翰林

3) 梁柱東, 麗謠箋注(서울, 을유文化社, 1955) p. 230.
4) 金倉圭, 앞의 논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別曲體〉[5]로 金文基는 〈景幾體歌〉[6]로 朴晟義는 〈景幾體別曲〉[7]이라는 절충형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諸說의 명칭 혼란은 安自山이 朝鮮詩歌의 苗脈에서 〈景幾體〉[8]라고 처음 命名한 以後가 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명칭에 對한 說을 綜合해 보면 크게 〈景幾體歌〉와 〈別曲體〉 그리고 高麗詩歌 全體를 지칭하는 〈別曲〉으로 하자는 3가지 명칭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칭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적절한 것인지를,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한 詩歌의 명칭이란, 그 詩歌 作品 내용과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景幾體歌〉 〈別曲體〉 및 〈別曲〉은 제각기 하나의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먼저 〈景幾體歌〉(景幾何如歌體포함) 명칭은 고려시대 양반들이 지은 〈翰林別曲〉類의 26편에서 볼 수 있는 각 作品의 終章에서 공통성을 찾아 내어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서 한 詩歌의 終章·特性을 살펴 文學 장르명을 붙이기로 한다면 많은 복잡성과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은 수없이 많아질 수 있다. 가령 향가의 10句體 경우 〈아오體〉, 시조의 경우 〈어즈버體〉와 〈두어라體〉로 범람할 것이고 의미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文學의 장르명도 내용과 형식상에 있어서 의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別曲體〉와 〈別曲〉의 경우 〈別曲〉이라는 의미 개념이 고려가요의 내용과 형식이 旣存의 〈歌〉와 〈曲〉에 대칭되는 別個의 曲으로 보고 붙인다 하지만 고려 속요체와 한림별곡류의 作品을 비교 했을 때 유독 《靑山別曲》類의 속요를 제외하고 한림별곡류 만을 〈別曲體〉라 할 수 없다. 사실 別曲名은 우리 민요나 속요에서도 別曲이라는 노래가 이미 生成되고 있음을 볼 때, 〈別曲〉이라는 장르명은 그 범위가 詩歌文學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림별곡류의 시가만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본다.

일찌기 〈景幾體歌〉에 대한 不當性을 李秉岐 博士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5) 金思燁, 李朝時代 歌謠의 硏究(서울. 학원사. 1962) p. 96.
6) 金文基. 앞의 논문.
7) 朴晟義. 高麗歌謠硏究, 民族文化硏究 4號(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70) p. 86.
8) 安確. 朝鮮詩歌의 苗脈(別乾坤 1929年 12月號)
9) 金甲起. 앞의 논문. p. 23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였다.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를 한자로 "景幾何如"로 적기도 하였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이런 노래를 景幾體歌라고 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各各한 귀절로서 반드시 그 사이를 띄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이 體로 된 노래라도 儒林歌와 같은 노래는 "위…景긔 엇더ᄒᆞ니 잇고"는 語句를 전연 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10]

이같은 李博士의 卓見을 소개한 바와같이 筆者 역시 여기에 同感한다. 다만, 불천기류인 《彌陀讚》《安養讚》《彌陀經讚》을 제외한 고려의 士大夫들이 지은 32편을 볼때 〈…景〉이라는 共通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景 긔 엇더ᄒᆞ니 잇고〉의 종장 어귀 중 〈…景〉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시가 형식상의 어떤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고려 《翰林 別曲》類의 종장 어귀 〈…景〉의 중요성에 대하여 趙東一 교수도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위"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대하는 구실을 한다. "…景"의 구실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 "景"이 첨기되면 視線을 끌 수 있는 光景, 또는 景致가 나타나게 되어 無心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라도 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말까지 첨기되어 있어서 "景…"이라고 제시된 것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집중시킨다.』[11]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景〉은 「장르」的 성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곧 〈…景〉이 종장 어귀에서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포괄하여 암시해 주는 詩的 의미를 표현하는 말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景〉이라는 대상의 의미에 따라 詩的 의미가 달라지고, 그 표현하는 대상의 소재가 사물을 비롯하여 自然과 山水, 도의 등이 작가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표현 의미가 달라 지는 것이다.

이러한 心像的인 詩的 의미에 따라 사물의 〈景〉은 이들 고려시가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翰林別曲》類 26편은 모두 〈敍景體歌〉로 命名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개될 형식상 의미와 내용的인 의미에서 다시 詳述할 것이다. 그리고 종장 이하에 〈…景〉이 전연 보이지 않

10) 李秉岐, 國文學全史(서울, 신구문화사 1960) p. 103.
11) 趙東一, 앞의 논문. p. 23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佛讚類 3편이었으나, 이는 〈…景〉에 붙어 있는 一般《翰林別曲《類와 같은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同一한 고려시가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景〉이란 형태의 의미는 고려시가 중 독특한 表現이 가지는 의미로서 자세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三.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성격

1. 形式上의 의미

《翰林別曲》類의 26편詩歌에 대한 形式問題는 많은 學者들이 言及한 바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作品에 나타나는 章·行의 音數律 파악에 따른 基本型을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加하고 있었다. 그 결과 《翰林別曲類》의 대부분 노래들은 前大節과 後大節로 크게 이루어 졌고, 3.3.4란 음수율에 3音步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였지만, 하나의 公式的이라 할 수 있는 定型詩의 모형은 찾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各 論者들이 作品을 다룰 때 各章, 各行, 各句를 단위로 하여 音數를 통계내어 基本型을 찾으려고 하는 作業의 대부분이기에 결국 혼란만 초래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趙潤濟,[12] 天台山人,[13] 梁柱東,[14] 金思燁,[15] 박사들이 내어 놓은 음수율의 기본형은 거의 타당성이 없이 퇴색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李明九,[16] 鄭炳昱,[17] 金倉圭,[18] 李鍾出,[19] 成昊慶,[20] 교수들이 내놓은 基本型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앞서 말한 先學들의 기초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종장의 字句 처리 과정[21]에서 기본형의 적용도가 흔들리기도 하

12)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 105~106(서울 을유문화사, 1954)
13) 金台俊, 別曲의 研究(東亞日報 1932)
14) 梁柱東, 麗謠箋注(서울 을유文化社, 1978)
15) 金思燁, 改稿國文學史(서울 정음사, 1956)
16) 李明九, 高麗歌謠의 研究(서울 新雅社, 1973)
17)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서울 신구문화사, 1977)
18) 金倉圭, 景幾體歌形式考 국어교육연구 5. (대구.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연구회 1973)
19) 李鍾出, 景幾體歌의 形態的 考究 한국언어문학. 12. (한국언어문학회 1974)
20) 成昊慶, 앞의 논문
21)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종장 어귀중 〈위〉를 독립시키지 않고 字數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3, 3, 4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것도 있고 해서 대체로 이 종장 부분의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였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諸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한 金文基교수의 方法이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金교수는 各章이 6行詩로서 제 1~3行은 3步格, 제 4~6行은 4 步格으로 된 定型詩라 하였다.[22] 그리고 간혹, 제 5 行이 2音步로 되어 있는 경우, 즉 再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定格이라 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거의 再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곧 4音步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은 결국 노래의 各章, 各行의 글자수를 통계 내어 그 기에 가장 적합한 빈도수를 보아서 기본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4.6행의 〈景幾何如〉 〈景何如〉 〈景幾叱多〉 〈景幾何多爲尼伊古〉 〈景幾何如爲尼是叱古〉 등이 종장에 漢字로 되어 있으나, 이 모두 "爲…景긔엇더ᄒᆞ니잇고"의 吏讀표기로 보고 4音步로 처리한 金교수의 의견에 동감이다. 그러나, 다같은 4 音步이지만, 筆者는 제4행과 6 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다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의 기본형을 도식한다면

제 1 행 3 3 4 (3음보)……
제 2 행 3 3 4 (3음보)…… 前大節
제 3 행 4 4 4 (3음보)……
제 4 행 위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4음보)……
제 5 행 4 4 再 唱 (4음보)…… 後小節
제 6 행 위 …景 긔 엇더ᄒᆞ니잇그(음보)……

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고려가요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향가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이 노래들은 唱을 전제로 해서 高抵나 長·短으로 구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4음보)
(장) (단) (장) (단) (唱)

신라 노래나 고려 노래들은 모두 작자에 의해서 詩라는 律格으로 言語에 의해서 창작(詠)되어 졌지만, 이 詩를 즐기는 대중에 의해서 曲律化됨으로써 唱이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위같이 제1.2.3行은 3音步로 제4.5.6行은 4音步로 나눔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翰林別曲》類의 노래들은 3편을 제외한

22) 金文基, 앞의 논문. p. 12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3편은 모두 李朝에 와서 창작되어짐을 감안할 때, 이 고려 노래들은 樂章과 함께 同時性을 지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노래들은 《한림별곡》《상대별곡》《화산별곡》《배천곡》등 《曲》이라는 노래 내용이 이루어 졌지만 때에 따라서는 〈興民樂調〉〈步虛子調〉〈鳳凰吟調〉〈滿殿春調〉〈五倫歌調〉〈翰林歌調〉 등으로 음악이 연주되고 불려(唱)졌다는 사실을 이조실록을 通해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종장 어귀만은 字數에 의한 것 보다는 唱法(고저장단)에 의한 4音步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4행과 제6행의 結辭부분을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를 4음보로 나누어 볼때 이미 앞에서 인용한 李秉岐 박사의 說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景幾體歌〉는 모순이 된다고 본다. 분명히 해석상으로 볼 때 〈위(爲)〉는 감탄을 뜻하며, 〈…景〉과 〈긔(幾)〉 및 〈엇더ᄒᆞ니잇고〉는 각각 띄워서 읽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해석이 다르게 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景〉과 〈긔(幾)〉는 따로 떨어져야 제각기 독립된 의미가 성립된다고 할 때 〈…景幾(긔)〉라고 붙여서 쓰는 불합리한 명칭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의 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景幾體歌〉를 〈叙景體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고려의 한림별곡과 26편의 작품은 형식상으로 연장체다. 특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前大節, 後大節로 나누어 6行詩라는 것은 거의 鄕歌의 詞腦歌에서 형태적인 발생 기원을 찾고 있다. 그대표적인 說로서는 崔正如교수는

> 『均如傳의 十種願往歌는 一大題下에 小題가 붙어 聯章體를 이루는 形式으로, 균傳하는 聯章體類의 가장 오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景幾體歌類나, 連時調類에서와 같이 同形으로 聯章을 取하는 것들이다. 均如의 鄕歌는 佛教에서 經文을 간추려 律文化하여 教化의 方便으로 利用하는 鄕歌인 것이다. 實例의 하나를 들자면, 鮮初 涵虛堂師가 원각경, 법화경의 요게만을 추려 大題下에 小題를 붙여 가면서 頌體 七言四句로 詠誦해 간 것을 보더라도 알 것이다.』[23]

라고 하였다. 이어서 한림별곡류도 佛讚歌에 속하는 《彌陀讚》《彌陀經讚》《安養讚》《西方歌》《기우목동가》 등을 十章式 엮어 놓은 類는 보현 십종원왕가와 그대로 들어 맞는 형의 노래다.

이 같이 〈叙景體歌〉의 연장체는 향가의 詞腦歌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고려의 明宗朝에 나온 漢詩作品 《瀟湘八景》詩에서도 영향을 받았

23) 崔正如, 鄕歌의 分節攷 p.226인용. 石溪趙仁濟박사 還曆紀念論叢(대구. 197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고 본다. 이 作品은 中國의 瀟湘의 경치를 여덟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시를 지은 작품이다. 〈소상 8경〉의 八景은 곧 〈平沙落雁〉〈遠浦歸帆〉〈瀟湘夜雨〉〈洞庭秋月〉〈江天暮雲〉〈烟寺暮鐘〉〈山市晴嵐〉〈漁村落照〉등을 말하는데, 이 小題에 각각 독립된 한편의 詩가 지어져 있다. 익제 이제현(1287—1367)의 漢詞作品인 《소상八景》과 《송도八景》보다 1世紀앞서 고려사에 보면

『子光弼 亦以畫 見寵於明宗 王 命文臣 賦瀟湘八景 仍寫爲圖…』[24]

『命文臣, 製瀟湘八景詩 倣其詩意 摹寫爲圖』[25]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 나오는 李光弼은 고려 明宗代(1170~1197)화가로서 王의 총애를 받았다. 明宗임금이 文臣들에게 절경으로 이름 난 中國의 《瀟湘八景》에 대하여 詩를 지어 바치게 하고, 그 詩意에 따른 그림을 또한 그리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소상의 八景詩에 八폭의 그림을 덧붙였으니 그야말로 〈詩中有畫, 畫中有詩〉뜻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八景詩題는 위에 『소개한 것과 같다.

고려 文臣들이 지은 소상 8경 詩 이후 益齊의 寫景詞 《소상 8경》《송도 8경》을 비롯하여 이조에 와서도 정도전(?—1398)의 《신도 8경》 鄭誧(1309—1345) 李仁老(1152—1220)의 七言絶句인 《宋迪八景圖》등이 나왔고, 이러한 연장형의 8경시는 이조 후기까지 계속되어졌다. 역시 고려의 고종때 나온 《한림별곡》 8章을 비롯하여 《관동별곡》 9章 《죽계별곡》 5章 《화전별곡》 6章 등은 각각 8景, 9景, 5景, 6景의 敍景體 별곡으로 이루어 졌다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때 고려의 《한림별곡》외 25편 〈서경체가〉중 불찬류는 향가의 사뇌가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외의 작품들은 거의 漢詩의 《소상 8景》詩에서 형식적인 영향을 받아 연장체로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에 대한 時期順으로 現傳하는 作品들의 現況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別表 참조>

高麗詩歌인 叙景體로서 現傳하는 作品은 모두 26편이다. 대체로 고려시대의 《翰林別曲》에서부터 《西方歌》 以前까지는 定格을 유지한다고 본다. 다소의 경우 《翰林別曲》 제六行의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結辭가 오지 않은

24) 高麗史 卷 122. 〈李寧條〉

25) 高麗史節要, 卷 12. 〈明宗十五年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제 목	작 자	제 작 년 대	章	形態	후 렴 귀	出 典
1	翰林別曲	翰林諸儒	高宗 3年 1216	8	定格	위…景긔더ᄒᆞ니잇고	고려사(卷71樂2)악장가사
2	關東 〃	安軸(1287~1348)	충숙왕 17年(1330)	9	定格	爲…景幾何如	謹齋集
3	竹溪 〃	〃	충숙(17~충목 4 (1330~1348)	5	〃	爲…景幾何如	謹齋集
				5	〃	위…景긔엇더ᄒᆞ니잇고	樂章歌詞
4	霜臺 〃	權近(1352~1409)	太宗(1401~1409)				
5	九月山別曲	柳 顯 (? ~1430)	世宗5년(1423)	4	〃	爲…景幾何如爲尼是叱古	文化柳氏左相公派譜乙酉譜後甲子譜
6	華山別曲	卞 季 良 (1369~1430)	世宗7년(1425)	8	〃	위…景긔엇더ᄒᆞ니잇고	세종실록(권28.7年夏4月 악장가사)
7	歌聖德	禮曹撰進	世宗11년(1429)	6	〃	偉…景何如	세종실록 권44 11月
8	祝聖壽	〃	〃	9	〃	偉…景何如	〃
9	五倫歌	禮 曹	世宗14년(1432)	6	〃	위…景긔잇디ᄒᆞ니잇고	악장가사
10	宴兄弟曲	〃	〃	5	〃	위…景긔잇디ᄒᆞ니잇고	〃
11	西方歌	義相和尙	世宗中期以前	10	〃	爲…景엇디ᄒᆞ다잇고	〃
12	彌陀贊	涵虛堂己和	〃 (1419~1432)	10	變格	……亦希有	涵虛堂語錄
13	安養讚	(1376~1432)	〃	10	〃	〃	〃
14	彌陀經讚	〃	〃	10	〃	〃	〃
15	騎牛牧童歌	未 詳	世宗・世祖	12	變格	爲…景幾如何爲尼伊古	寂滅衆示論
16	不憂軒曲	丁克仁	成宗3年(1472)	6	〃	偉…景何叱多	不憂軒集
17	錦城別曲	朴成乾	成宗11年(1480)	6	〃	爲…景幾何如	五恨先生遺稿
18	配天曲	禮曹撰進	成宗23年(1492)	3	〃	……景幾何如	성종23年壬子8月條 성종실록(권268 20)
19	關山別曲	潘碩枰源作	中宗16年(1521)	8	〃	?	?
20	花田別曲	李文仲潤色 金 緤 (1488~1534)	中 宗 代 (1519~1530)	6	破格	위…景긔잇더ᄒᆞ니잇고	冉菴集
21	道東曲	周世鵬 (1495~1554)	中宗36年(1541)	9	〃	위…景긔엇더ᄒᆞ니잇고	武陵雜稿(卷8別集) 竹溪志
22	儼然曲	〃	〃	7	〃	위…景幾엇더ᄒᆞ니잇고	〃
23	太平曲	〃	〃	5	〃	애…景幾엇더ᄒᆞ니잇고	〃
24	六賢歌	〃	〃	6	〃	위…景幾엇더ᄒᆞ니잇고	〃
25	獨樂曲	權好文 (1532~1587)	선 조 대 (1568~1587)	7	〃	…景긔잇디ᄒᆞ니잇고	松巖集(속집)
26	忠孝歌	閔 圭	철종11年(1860)	6	〃	…景幾如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곳 《關東》《竹溪》 兩別曲은 제 4 行에 再唱이 없는 곳이 있으나 이것은 變格이 아니고 하나의 기록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누락되어 전해 진 것으로 보고 모두 定格으로 넣고자 한다. 후렴귀의 경우 대부분이 漢文으로된 結辭가 기록되어 있지만,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意味일 것이며, 佛讚歌 3편은 모두 《… 亦希有》로 기록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李朝 中期 壬亂을 前後하여 《獨樂曲》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 이런 형태의 노래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1860년(철종 11年)에 崔宰의 《忠孝歌》가 나타나 초기의 작품보다 많은 변형을 가져왔다.

2. 內容上의 意味

《翰林別曲》類의 叙景體 作品은 대체로 支配者의 文學[27]으로서 일반 평민들에게는 영합되지 못하는 士大夫의 전유물이다. 고려말 이조초의 士大夫들은 대부분 中央의 官僚인 동시에 地方의 地主[27]로서 生活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生活의 양면성은 또한 그들의 文學에도 양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에 밀착되거나, 소외 당하였을 때 나타나는 文學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고려시대 나타난 《한림별곡》등 3편의 작품은 무신 집권 하에서 무신의 비호를 받은 신진 인사, 즉 신진 사대부의 초기 作品이다. 이들 作品 내용이 主로 호화롭고 意氣에 찬 官人集團의 生活을 노래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 王化의 中興을 頌祝하고 官人의 高壓的이며 得意然하는 기상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李朝의 新興儒者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들의 嗜好에 迎合됨에 따라 이 조중기까지 지속 시켰다. 따라서 支配者의 文學으로 출발한 고려의 한림별곡류의 서경체가의 세계는 차차 官僚的 文學의 세계에서 處士的 文學의 세계로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고려의 儒者, 僧侶들이 지은 詩歌文學인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려 무신의 跋扈에 의하여 山林에 逃避한 處士文學的인 세대로서 항상 山林속에서 自然을 즐기고 풍류를 생각하는 詩歌와 둘째로 고려 무신들에게 아부하여 집권층에 追從하려는 소위 宮廷文學的인 詩歌, 그리고 세째는 佛敎의 경전을 바탕으로 한 讚佛의 詩歌로 나눌 수

26) 金倉圭, 別曲體歌의 內面的 性格考察 국어교육연구 6집 (대구, 경북대 사대국어교육연구회. 1974)

27) 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p. 15~16 成大論文集 9 (서울 : 성균관대학교 196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있다. 이러한 3가지의 詩歌群 분류에 속하는 各作品은 연장체 형식으로서 매 章마다 종장에는 〈…景〉이라는 공통성의 특질을 갖고 있다.

〈위…景 긔 엇더ᄒᆞ니잇〉에 對해서는 이미 앞에서 사뇌가의 《보현십원가》와 漢詩의 소상八경을 例로 들어 형성과정을 이야기 한 바 있다. 보현십원가라는 하나의 大題目에 小題目의 11首作品이 지어 졌고 益齋의 《瀟湘八景》도 8가지의 小題目下에 詩가 이루어져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소상 8경》은 이미 益齋보다도 한 세기 앞서 고려의 明宗(1170~1197)때 文臣들이 王命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 뒤에 고려의 高宗 3年(1216)에 《翰林別曲》이 처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미 고려가요 중 《翰林別曲》類는 그 表現文字가 거의 漢字로만 되어 있고, 또한 作者도 오로지 양반 귀족의 漢學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보아온 3.3調의 音數律이나 3音步格의 音步律, 그리고 聯詩形(연장체)으로 보아 中國의 宋詞에서의 본받을 가능성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28] 그러므로 고려의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는 外來樂曲 내지는 宋의 詞文學,[29] 그리고 《瀟湘八景》[30] 같은 漢詩의 영향이 크게 끼쳤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正統的인 형태적 계승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鄕歌 《보현십원가》가 비롯되어 졌을 것이고 그 후 고려 명종때 文臣들에 의해 지어진 《소상 8경》의 漢詩 作品의 영향이 크게 작용되어 졌다고 본다. 이러한 형태적인 계승은 곧 內容에도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翰林別曲》의 8章 《關東別曲》의 9章, 《竹溪別曲》의 5章 등의 가운데서 〈章〉을 〈景〉으로 바꾸어 본다면 더욱 내용상으로 노래 의미의 구체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叙景體歌〉 가운데 《九月山別曲》 4景, 《華山別曲》 8景, 《鉢城別曲》 6景, 《花田別曲》 6景등과 같이 章을 〈景〉으로 소개하면 제목과 함께 내용의 의미가 동시에 부

---

28) 이미 宋詞의 영향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天台山人, 金俊榮, 李明九氏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29) 麗代 詞樂의 영향으로 의문을 가지는 점은 麗史樂志의 詞樂歌詞中에 보면 景幾體歌의 結辭부분의 各節에 붙은 〈…景〉을 볼 수 있다. 가령
逐菜葉殿 神仙景(獻仙桃 金盞子慢의 끝부분)
室對景(月華淸 慢의 끝부분)
當美景(傳花枝分의 끝부분)
變韶景(傾盃樂中
神州覲景(迎春樂 尾前詞의 중)등을 들 수 있다.

30) 益齋의 瀟湘八景을 〈巫山一段雲〉調 혹은 〈長短句〉의 詞作品으로 불리운다. 이는 雙調 4,4字 前後段 各四句三평운체에 따른 것이다. 前後段 제三句가 七言句로 되어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五言句로 되어 있다. 前後段 第一, 二句는 對句를 이루는 것이 通例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각되고 있다. 특히 翰林諸儒들의 所作인 《翰林別曲》 全 8聯(章)은 每聯에 一景씩을 配列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樂獨八曲》 (실제는 七曲이지만)은 作者(松岩)의 樂天的인 生活 태도와 풍류 생활을 一曲(景)씩 表現한 작자의 心情을 느낄 수 있고, 《花田別曲》은 作者(金緅)가 海南에 있는 花田의 四圍 풍경을 一景씩 叙하고 풍류적인 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그외 自然과 山水의 美를 一景씩 叙한 作品으로는 관동별곡, 죽계별곡, 화전별곡 등에서 볼 때, 눈앞에 전개되는 山水의 풍경을 一景씩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 頌禱的 內容을 가진 《華山別曲》의 경우 제1章이 〈鄕邑의 景〉 제2章은 〈太平相의 景〉, 제3章은 〈講文의 景〉, 제4章은 〈講武의 景〉, 제5章은 〈善政의 景〉, 제6章은 〈登賢한 都市 山川의 景〉, 제7章은 〈侍宴의 景〉, 제8章은 〈民生의 景〉을 各各 叙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위의 《瀟湘八景》과 같이 내용상의 구성이나, 형식이 고려의 노래 또한 漢詩와 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고려노래인 《翰林別曲》類의 26편은 형식상, 의미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종장이 어귀에 나타나는 〈○○景〉이라고 할 수 있다. 〈…景〉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장르상의 성격이 드러난다.

먼저 「…景」에 대한 辭典的 의미를 보면

「景」: ① 日光(光色)也 ② 日也 ③ 明也 ④ 白也 ⑤ 像也
⑥ 謂配合有致之形色(景致) ⑦ 謂形色可玩賞者, 如風景景物
⑧ 風情 ⑨ 慕也 ⑩ 仰也 ⑩ 遠行貌與憬通. 〈中文大辭典〉

과 같다. 辭典的인 〈景〉은 결국, 크고 넓은 우주 공간에 펼쳐지는 大自然의 경치를 의미하고 있다.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인 結辭 〈爲…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景 그것이 어떠합니까?〉로 해석될 때 한결같이 하나의 景의 대상에 對하여 감탄을 표시하고 설의적인 표현 어귀로서 주제의 제시가 직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作者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 채, 객관적이고, 추상적, 간접적인 景況을 나타내어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작자가 의도하는 상황이나, 사물 자체를 암시하면서, 〈○○景〉을 기술하고, 작자와 독자 사이에서 하나의 共感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에 있어서 結辭에 나타나는 〈景〉은 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래 내용에 있어서 보다 깊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結辭의 의미가 내용상, 형식상 중요하듯 〈敍景體歌〉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는 한층 이해하기가 수월해 졌을 것이다. 이미 〈景〉에 대하여 趙東一 교수도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위"에서 시작된 이려한 변화를 더욱 확대하는 구실을 한다. "…景"의 구실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 ……"試場"등으로 말한 것은 한낱 개념에 지나지 않지만 "試場景"이라고 하여 "…景"이 첨가되면 시선을 끌 수 있는 광경, 또는 경치가 나타나게 되어, 無心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라도 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긔 엇더ᄒᆞ니 잇고"라는 말까지 첨가되어 있어서 "…景"이라고 제시된 것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집중시킨다.』[31]

라고 하였다.

〈…景〉 다음에 오는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물음은 어떤 대단한 答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단순한 의문이 아닌 감탄을 내포한 의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景〉은 장르的 性格을 좌우할 만큼 重要한 구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景〉은 作品의 結辭 부분으로서 앞서 전개한 내용을 包括하는 역할로서 自我의 世界化에 破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結局 〈…景〉은 앞의 전개된 包括的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景致, 혹은 光景이 되도록 하나의 對象이 되게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佛讚인 《彌陀讚》《安養讚》《彌陀讚》 3편[32]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作品은 모두 〈…景〉이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關山別曲》을 제외한 25편에 대한 〈…景〉의 부분을 소개한다.

章	앞부분	뒷부분
1.	試場ㅅ景	(날조차 몃부니잇고)
2.	註조쳐내외온ㅅ景	歷覽ㅅ景
3.	덕논景	走筆ㅅ景
4.	勸上ㅅ景	醉혼ㅅ景
5.	間發ㅅ景	相謔ㅅ景

31) 趙東一, 앞의 논문, p. 237.

32) 佛讚歌中 이 三作品의 경우 結辭部分에 〈……景〉이 없고, 모두 한결같이 〈亦希有〉가 대부분이고, 처음 시작하는 첫 章 結末에는 〈寔希有〉 〈最希有〉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6. 過夜ㅅ景 (듣고 아즘 드러지다)
7. 登望五湖ㅅ景 (嚼黃鶯 반갑두세라)
8. (내가논디 남갈세라) 携手同遊ㅅ景 (翰林別曲)

1. 巡察景 玉化中興景
2. 登望滄溟景 歷訪景
3. (四海天下 無豆舍叱多) (又來悉何奴日是古)
4. (古溫貌 我隱 伊西爲乎伊多) (萬古千秋尙分明)
5. 泛舟景 (羊酪豈勿參爲理古)
6. 弄朱絃景 (四節遊伊沙伊多)
7. 遊賞景 日出景
8. 迎送佳賓景 (鷗伊鳥藩甲豆叙羅)
9. 避暑景 傳子傳孫景 (關東別曲)

1. 釀作中興景 山水高景
2. 遊興景 携手相遊景
3. 春誦夏絃景 呵喝迎新景
4. (一朶紅雪垂未絕) (千里相思又奈何)
5. 雪月交光景 (四節游是沙伊多) (竹溪別曲)

1. 萬古淸風ㅅ景 (날조차 몃분니잇고)
2. 上臺ㅅ景 振起頹綱ㅅ景
3. 狀上ㅅ景 從諫如流ㅅ景
4. 勸上ㅅ景 醉흠景
5. 없음 없음 (霜臺別曲)

1. 都邑ㅅ景 持守ㅅ景
2. 太平ㅅ景 兩得ㅅ景
3. 右文ㅅ景 古今ㅅ景
4. 講武ㅅ景 預備ㅅ景
5. 無逸ㅅ景 (千歲를 누리소셔)
6. 登覽ㅅ景 (어데가 어드리잇고)
7. 侍宴ㅅ景 (萬歲를 누리소셔)
8. 長治ㅅ景 並久ㅅ景 (華山別曲)

1. 積善流芳 景 (我從良 幾叱分是古)
2. 餘慶 無窮景 (於飛尺 轍所乎尼是叱古)
3. 親睦九族 景 (閑于墻 我隱休老里羅)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藏器待時景　　(天乙沙 知飛是多) 。(九月山別曲)

1. 四海一家景　　四海一家景
2. 愛之敬之景　　愛之敬之景
3. 祝壽萬年景　　祝壽萬年景
4. 天下太平景　　天下太平景
5. 三呼萬歲景　　三呼萬歲景
6. 敷秦是旅景　　敷秦是旅景　　(歌聖德)

1. 萬古流行入景　　立極入景
2. 養老入景　　定省入景
3. 復唐虞入景　　祥瑞入景
4. 和樂入景　　言約入景
5. 讓義入景　　相讓入景
6. 表誠入景　　久而敬之入景　　(五倫歌)

1. 相愛入景　　率性入景
2. 相 ·入景　　進德入景
3. 厚倫入景　　永好入景
4. 兩全入景　　無間入景
5. 泰治入景　　壽昌入景　　(宴兄弟曲)

1. 教化衆生景　　返淨即是景
2. 功德莊嚴景　　達矢成佛景
3. 微妙香潔景沙　　受諸快樂景
4. 供養他方景伊　　勝事諸佛景伊
5. 演暢說法景　　緣念三昧景
6. 念僧景　　聞法歡喜景沙
7. 壽命長遠景沙　　永斷生死景沙
8. 但會一處景　　熏習增進景
9. 直證上品景沙　　殊勝功德景沙
10. 寶皆接人景　　生生極樂景　　(西方歌)

1. 毁土現形　　寔希有　　方便接引
2. 普應無方　　亦希有　　隨類攝化
3. 開悟衆生　　亦希有　　瞻皆仰慕
4. 如願度生　　亦希有　　聞皆感化
5. 永出三界　　亦希有　　皆得解脫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6. 授記作佛	亦希有	十念起昇	
7. 度生無厭	亦希有	九品超生	
8. 如是高勝	亦希有	高勝無比	
9. 如是德化	亦希有	直登上品	
10. 佛先圓證	亦希有	如佛共證	(彌陀讚)
1. 共度迷倫	最希有	恩踰父母	
2. 欣彼往生	亦希有	海會照然	
3. 常享無極	亦希有	隨念現前	
4. 清淨嚴飾	亦希有	莊嚴妙存	
5. 於中受生	亦希有	隨分受生	
6. 供養他方	亦希有	往返無碍	
7. 增進修行	亦希有	宣流法化	
8. 永斷生死	亦希有	壽命長遠	
9. 同趣菩提	亦希有	熏習增進	
10. 九蓮花往	亦希有	皆心往生	(安養讚)
1. 令修淨土	最希有	如暗得燈	
2. 令不退墮	亦希有	如保赤子	
3. 勸令往生	亦希有	讚彼淨土	
4. 勸令勸念	亦希有	讚彼彌陀	
5. 如是同讚	亦希有	同讚勸持	
6. 如是相讚	亦希有	互相稱讚	
7. 流通法化	亦希有	其數無量	
8. 度盡有緣	亦希有	同登彼岸	
9. 到此知非	亦希有	忽然回頭	
10. 因此知歸	亦希有	靡然趨化	(彌陀經讚)

1. 回向三處景	度諸迷淪景
2. 報佛大恩景	發明輪回景
3. 出於根塵景	四洲遊方景
4. 空寂靈知景	返淨即是景
5. 自然天堂景	自照天明景
6. 定慧等持景	蒙佛授記景
7. 成就大圓景	本自圓成景
8. 即離諸想景	共證離相景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9. 忽然心覺景　　同訂覺岸景
10. 本無形相景　　江湖滿月景
11. 廣度衆生景　　大願境界景
12. 至今流傳景　　本來虛玄景　　(騎牛牧童歌)

1. 樂以忘憂景　　遵道而行景
2. 諄諄善誘景　　自遠方來景
3. 如釋重負景　　再參原從景
4. 樂且有儀景　　祈天永命景
5. 不懼不憂景　　古訓是式景
6. 過蒙褒奬景　　聖恩深重景・作此如歌逍遙世慮景 (不憂軒曲)

1. 鍾秀人才景　　佳氣葱籠景
2. 切磋琢磨景　　日就月將景
3. 以德化身景　　養育人才景
4. 振起文風景　　師明弟哲景
5. 羅顯羅賓四寸兄弟共上蓮榜景,　　十人同年景
6. 醉裡歡場景　　待使華燭調景　　(錦城別曲)

1. 至治蝟興景　　熙熙皞皞景
2. 崇教隆化景　　臨離盛擧景
3. 同宴以飮景　　載賡周雅景　　(配天曲)

1. 天南勝地ㅅ景　　(날조차 몃분이신고)
2. 品官齊會ㅅ景　　唱和ㅅ景
3. 花林勝美ㅅ景　　(鐵石肝腸이라도 아니 긋기리 업디라)
4. 發興景　　(듯괴야 좀드로리다)
5. マ득브어 勸觴景　　(어닉 제 슬플 저기 이실고)
6. (石田茅屋 時和歲豐)　　(나는 됴ᄒᆞ ᄒᆞ노라)　　(花田別曲)

1. 繼天立極景
2. (주거니 받거니 聖人의 心法이 다믄 잇분니이다)
3. 君臣相得景
4. (萬古淵源이 그츨 뉘 업ᄉᆞ샷다)
5. 學聖忘勞景
6. (至誠無息이아 本니이다)
7. (그처딘 길ᄂᆞᆯ 잇데ᄒᆞ야 니ᄋᆞ신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8.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르시리잇거)
9. 吾道東來景 (道東曲)

1. (一點邪念이 어드러셔 나리잇고)
2. (좃고아 마로링이다)
3. (敬으로 丘隅를 사마 넌덕 안쎠 마옵새)
4. 一元循環悠悠景
5. 俯仰에 부쓰럽디 아닌景
6. 萬福無疆景
7. (義皇 젯 사롬과 어니아 더닝잇고) (儼然曲)

1. (唐堯聖德이 하놀과 ᄀᆞᄐᆞ샷다)
2. (帝堯無爲므로 이리잇 브시리잇고)
3. 太平景
4. 進賢景
5. 江海能下百川이 朝宗景 (太平曲)

1. (程伊川의 展也大成 貴호 줄 뉘 알리잇고)
2. 張橫渠의 一變至道力踐景
3. 邵堯夫의 觀風觀德歷覽景
4. 司馬公의 事神不斯獨樂景
5. (韓魏公의 端嚴謹重이 어ᄂᆞ 제 밧브시러잇고)
6. (范文正의 進退有憂 어너 제 즐거우시리잇고) (六賢歌)

1. 岸幘長嘯景
2. 忘機伴鷗景
3. 嘐嘐然 尙友千古景
4. 悠然胸次 與天地萬物上下同流景
5. 世間萬事 都付天命景
6. 綠簑山窓의 共把遺經究終始景
7. 百年閒老景 (獨樂曲)

1. 閒神藏鬼 秘鐘靈久 似烟兮非烟 晩華村風景
2. (蹊自成 素冠白衣 食無魚 深衷竟誰識 傷心處 春草綠)
3. (山操有詩 歌董生行 多讀南陔詩西山 吟千載下 聞風者起)
4. (磊磊乎 使人數百 步去復還)
5. 寓之目 名區風景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6. 〔獨先生之 不遇時〕 (忠孝歌)[33]

괄호 안에 쓴 것은 〈…景〉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와는 다른 말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즉 未完成된 景으로서 이는 곧 작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內容에서 보는 바와같이 모든 작품에 나타나는 結辭의 〈…景〉은 설의적인 表現語句로서 主題의 제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結辭에 〈…景〉이 나타나는 22편의 作品을 통해서 볼 때 〈…景〉의 語句가 총 194句나 된다. 各 作品의 結辭에 나타난 〈…景〉을 볼 때, 내용상으로 두가지 면을 느낄 수 있다.

〈勤力ㅅ景,〉 〈過夜ㅅ景,〉 〈巡察景,〉 〈遊賞景,〉 〈日出景,〉 〈醉ᄒᆞ景〉등에서처럼 行動이나 상태가 눈앞에 나타날 때, 바라보아야 할 對象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또한 事物化까지 된다. 다음으로 〈和樂ㅅ景,〉 〈率性ㅅ景,〉 〈厚倫ㅅ景,〉 〈進德ㅅ景,〉 〈進賢景〉등은 率性, 和樂, 厚倫, 進德, 進賢처럼 抽象的인 개념도 〈…景〉으로 나타내어 可視的인 事物로 나타내고 있다. 前者를 직접적인 叙景이라 할 수 있는 良辰美景이라고 하면, 後者는 간접적인 叙景으로서 樹陰遮景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良辰美景은 主로 頌禱的인 노래와 自然의 山水 및 隱逸君子의 風流를 직접적인 조명으로 一景이 된 것이고, 樹陰遮景은 道德및 종교적인 心象의 景으로서 곧으로 나타나지 않은 道德君子의 간접적인 心理的인 상황을 可視的으로 나타낸 一景이라 하겠다.

良辰美景은 自然의 山水景이 눈앞에 전개되어 변화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現實的인 景이다. 그러나 樹陰遮景의 佛讚및 道德的인 景의 像(image)은 하나의 想像的인 景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의 작품 가운데 〈和樂ㅅ景〉 〈率性ㅅ景〉 〈厚倫ㅅ景〉 등에서 〈景〉은 現實的인 것일 必要가 없다. 즉 작자는 그것에 대한 情을 작품상으로 具體化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像들은 거의 想像的인 것으로 그것은 獨自의 景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한림별곡류의 作品群에도 〈情〉과 〈景〉이 항상 공존하고 구성되어 作品上에 나타날 때는 〈景〉으로 表現되지만 그 가운데는 〈情〉이 포함되므로 하나의 詩로서 완성된 作品이 될 것이다.

33) 〈忠孝歌〉는 다른 景幾體歌와 비교해서 破格이 너무 심하고 創作年代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일단 그 범위 안에 넣어 취급하고자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四. 形態的 接脈과 詩情의 脈絡

詩란 詩人의 世界와 自己 마음에 대한 觀照의 具體化[34]라고 말한다면, 하나의 理想的인 詩는 世界의 형상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정서와 의식적인 예술품의 흔적을 떠난 자연을 대상화하고 형상화 할 때 가능하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翰林別曲》類의 作品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이 自然의 山水와 거기서 얻는 현실의 〈風流的인 景〉과 道德 및 宗教的이고 이상을 나타내는 〈心象的인 景〉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表現된 作品上의 景은 모두 外景이다. 원래는 〈情〉과 〈景〉이 서로 융합이 되고 조화가 되어 이루어 졌지만 하나의 詩로서 作品化 할 때는 독자가 이해 할 수 있는 可視的인 外景으로 나타낸 것이다. 可視的인 外景속에는 반드시 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詩로서 가능해 질 것이다.

詩에 있어서 〈情〉과 〈景〉의 융합된 적절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 가장 좋은 詩라고 한다.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35]
『情景雖有在心 在物之分, 而景生情, 情生景』[36]

위의 인용에서 보면 情과 景은 이름은 둘이지만, 實際로 詩에 있어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精巧한 詩일수록 情가운데 景이, 景가운데 情이 나타나 作品上에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情은 곧 마음에서 나타나고 景은 事物에서 생겨나지만, 실제로서 自然을 대상으로 景으로 볼 때 情이 생겨날 것이며, 마음속에 생겨나는 情을 想像으로 나타내려면 景을 通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景과 情은 실제로 서로 생겨나는 共存의 상태라 하겠다. 이와 같이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結辭부분의 〈…景〉이 갖는 의미는 詩歌上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각 작품마다, 표현된 〈…景〉의 위치는 대체로 제 4행(앞부분) 제6행(뒷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노래의 결사에 해당하는 실제 作品

34)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p. 111(서울 汎學圖書, 1979)
35~36) 「王船山遺書」, 위의책, 재인용.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 例를 보이는 가운데서 한곳에서만 나타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景〉이라고 나타난다. 이 〈…景〉은 各 作品에 따라 自然山水 및 風流, 道德, 頌禱, 佛讚의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를 총괄해서 나타내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제1.2.3행의 개별적인 내용들 제4행에서 총괄하여 나타내고 다시 제5행과 6행에서 앞의 의미를 재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말해서 제4행의 〈…景〉은 앞에 전개된 內容을 包括하였다가 다시 제6행의 뒷부분까지 연장되어서 結末로 나타나고 있다. 이 結末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충적인 설명으로서 거듭 趙東一 교수의 說을 빌린다면

> 『一旦 包括的인 것에 이르렀다가 包括中의 個別이 나타나고, 끝으로 包括 中의 包括에 귀하되는 것은 質的 變化는 一時的인 역행을 거쳐서 完結되는 一般的인 과정에 符合되며, 個別的인 것에서 出發하여 包括的인 것에 이르는 전개가 景幾體歌의 順次的 구조이다.』[37]

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景〉 個別的인 것에서 包括的인 完結로 이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外景만을 의미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情까지 포함되는 包括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래의 性格을 이조사회의 新興士大夫의 思考方式의 一端으로 파악될 때, 우리 詩歌文學史에서 이들 作品이 갖는 내용및 형태적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高麗時代는 찬연한 漢文學의 振作과 함께 大陸文化의 교류로 大晟樂의 傳來와 많은 曲의 섭취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事大의 文風은 이미 新羅와 달라 그 모방과 無批判的인 受容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의 基本 情緖는 固有한 民族 情緖에서, 그리고 表現的外形은 外邦에서 영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인 外形的 類似性과 思潮의 移入을 가지고 고유한 민족 情緖의 전통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가 漢學者間에서 消日破寂의 거리로 이 型의 詩歌가 發見되었다고 추측한다면[38] 이 노래들은 漢詩에서 영향을 입었을 것이고, 時代的으로 신라의 鄕歌 중 《보현십원가》에 까지 소급되어 진다.

現傳하는 25首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6句體가 7편으로 代表的이며, 5·8句體가 各 4편씩이고, 기타는 다양한 변형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高麗

37) 趙東一, 앞의 논문, p. 238 인용.
38) 趙潤濟 著, 韓國詩歌의 硏究 〈高麗의 長歌〉 p. 11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朝에 完成된 3편 즉, 《翰林別曲》, 《關東別曲》, 《竹溪別曲》은 共히 6句로도 8.9.5聯體로 되어 있다. 이것은 初期의 完成된 形態로서 定格이라 함은 곧 "前4句+後斂2句"라는 정연한 형식을 두고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본 음수율도, 3.3.3. 3.3.4調로서 우리 民族의 기본정서와 一脈되어 진다. 前4句는 곧 上代 民謠 혹은 新羅의 漢詩體, 4句體의 詞腦歌, 다시, 四句 分聯體라하는 《悼二將歌》의 四句 分聯型에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結辭의 후렴구가 생겨난 翰林別曲類의 叙景體詩歌가 발생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 붙여서 聯章體 形式은 고려 中期에 들어온 宋詞와 七言律의 漢詩系統및 益齋의 《瀟湘八景》 寫景詞 作品의 영향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 以後 이러한 詩歌上의 聯章體 形式은 李朝의 連時調에 다시 月令體歌辭에 까지 그 영향은 크게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叙景體詩歌〉의 形態的 脈絡으로서는 主로 羅代의 漢詩歌인 詞腦歌와 麗代의 《瀟湘八景》 詩에서 그 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인 것과는 달리 그 內容의 詩情은 한마디로 士大夫의 生活 構造속에서 이루어진 〈官僚的 文學〉으로서 豪放을 誇한 相讚의 文學이요, 得意의 快를 누리는 新興 士大夫의 文學이라 하겠다.

〈叙景體詩歌〉에 나타난 詩情의 내용은 어떠한 전통적인 정서를 찾기보다는 自然의 山水를 벗하며, 風流를 즐기는 叙景속에서 人間本然의 享樂性을 추구하기도 하고, 自然의 爽快한 미묘한 詩興을 찾는 가운데 個性과 知性을 상실한 貴族 官僚의 精神的 방황을 찾아볼 수도 있다.

貴族 官僚들의 風流的인 文風은 곧 朝鮮朝의 詩調文學과 歌辭文學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가령 《花田別曲》에 나타난 海南의 叙景내용은 곧 《賞春曲》에 영향을 주어 가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이후 《면앙정가》, 그리고 《성산별곡》과 《노계가》까지 그 脈이 이어져 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 《관동·죽계》 兩別曲은 이조 말기의 기행가사 文學에 까지 接脈이 될 수 있으며, 도덕가류는 朝鮮時代의 國是와 함께 발전하여 가사보다는 時調文學쪽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高麗의 高宗때 翰林諸儒들이 創作한 《翰林別曲》과 같은 특유한 詩情은 이조에 와서 점점 變質되었고, 그것은 이조 중기에 왕성한 儒學(理氣哲學)의 심취에 밀려 거의 斷絶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五. 結 論

以上 지금까지 叙述한 것을 要點으로 추려, 몇 條의 摭錄으로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1) 詩歌의 명칭 문제로서 지금까지 學界에서는 고려의 官僚文學에 속하는 《翰林別曲》類 26편의 作品에 對해서 대체로 〈景幾體歌〉〈別曲體歌〉〈別曲〉등의 세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모두 각각의 나름대로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음을 보았지만, 아직도 결함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래서 論者는 〈敍景體歌〉란 명칭을 내세워 보고 싶다. 종래의 경기체가 보다 새로운 명칭이 그런대로 이 詩歌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명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려속요는 현재 사용하는 대로 보고싶다) 이에 대한 이유와 보조적인 설명은 〈위…景 긔 엇더ᄒᆞ니 잇고〉를 4음보로 나누어 唱曲으로 재 음미해 볼때,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더 검토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諸 先輩同學의 질정을 바라고 싶다.

(2) 그러므로 이 《翰林別曲》類의 〈叙景體歌〉의 律格은 너무 詩구성의 字數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본형을 찾을 수 있다.

제 1 행 3. 3. 4 ……
제 2 행 3. 3. 4 …… 前 大 節
제 3 행 4. 4. 4 ……
제 4 행 위…景 긔 엇더ᄒᆞ니 잇고(4음보)……
제 5 행 4. 4. (再唱) (〃)…… 后 小 節
제 6 행 위 …景 긔 엇더ᄒᆞ니 잇고 (〃)……

위와 같이 하나의 공식으로 定하여 音步律로 파악될 때 복잡한 음수율의 혼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제4. 6행의 4음보로 區分한 것은唱法에 의한 단위로서 〈위(長)…景(短) 긔(長) 엇더ᄒᆞ니잇고(短)〉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같다

(3) 〈叙景體歌〉는 형식상으로 聯章體 詩歌다. 이미 그 發生을 羅代 鄕歌인 보현십종원왕가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의 明宗때 文臣들이 창작하고, 화공들이 그림그려 바친 《瀟湘八景》의 漢詩와 益齋가 지은 巫山一段雲調의 《瀟湘八景》과 《松都八景》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八景이라는 연장체 형식의 漢詩가 당시 貴族層의 文人들에게는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할 때, 內容上에 까지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4) 〈叙景體歌〉의 내용상 의미로서 自然의 山水景과 풍류및 頌禱的인 叙景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風流의 景을 良辰美景이라 하였고, 道德및 宗教的인 간접적인 心象의 景, 즉 道德君子의 心理的 상황을 可視的으로 나타낸다 해서 陰遮美景으로 區分해 보았다. 그러나 25편의 실제 作品群의 共通的인 것으로는 〈…景〉의 像(imege)이 대부분 想像的인 景으로 그려져 可視的인 事物로 通해서 詩情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作者는 情을 具體化하기 위해 各 作品마다 상상적인 獨自의 景을 추구하고 있어 叙景體 作品에는 〈景〉을 通해서 〈情〉이 항상 共存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5) 끝으로 〈叙景體歌〉는 羅代의 鄕歌인 《보현십원가》와 麗代의 漢學者들이 창작한 《瀟湘八景》의 漢詩로 부터 聯章體의 形態的 脈絡은 李朝의 時調와 月令體歌辭에 까지 영향이 미쳤다. 한편 士大夫의 風流的인 叙景의 文風은 賞春曲에 영향을 주어 歌辭를 발생케 하고, 이어 송순의 《면앙정가》 그리고 송강의 《성산별곡》, 노계의 《노계가》까지 詩情의 脈이 이어 졌다고 하겠다. 고려 高宗때 발생된 《翰林別曲》으로 부터 발전하여 이조 中期 《獨樂八曲에》 와서는 性理 儒學의 심취에 밀려, 〈叙景體歌〉는 거의 斷絶상태가 되고 말았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